

결해 보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심 지점들 사이의 층위를 그려보게 하거나, 각각의 관심 지점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생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의문점을 발견한다면, 상담자는 앞서의 첫 번째 유형처럼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질문으로 이어간다.

연구 대상을 꼼꼼히 살피면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버리는 과정은 의미 있는 글을 만들기 위한 기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관심사는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는 주제를 '제시해주는' 역할일 수는 없으며 학생과 대화하면서 문제의식을 '이끌어주고', '다듬어주는' 역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 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자는 학생의 관심과 동기를 이해하게 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담긴 문제의식을 다듬어가거나,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보충해야 할 다른 과정을 깨닫는다. 학생들이 처음에 지녔던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문제의식은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갖춰간다.

## 자신만의 학습 레시피를 찾아라!

● ● ●  
신 서 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상담실 객원상담원

학습상담실에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찾아온다. 어떤 학생들은 특정 과목의 학점을 높일 수 있는 학습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지가 약해서 공부가 꾸준히 되지 않는다며 의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 과연 학습과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들이 해결될까? 인터넷과 서점에 넘쳐나는 다양한 학습전략과 학습방법에 관한 글들, 또 자기계발 서적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학습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한다. 특히나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은 이미 학창시절에 학습과 관련된 성공경험들이 있는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와서 학습이 꾸준히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대답은 매우 간단할지도 모른다. 모르지만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귀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학습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한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먼저 그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적합한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에 민감해서 조그마한 시계소리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공부가 잘 되지 않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면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다. 또 학습을 시작한다는 건 상당한 내적 또는 외적 동기가 필요한 일이다.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에 학습을 한다는 건 그보다 더 큰 동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우리 몸의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좋지 않아서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졸음을 참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전공 서적이 온통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해서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어제 부모님과 다툼이 있었을 때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기도 할 것이며, 친구 사이에서의 오해나 갈등이 자꾸 마음을 어지럽혀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학습은 다양한 환경적, 인지적, 정서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작이 되고 유지된다. 단순히 공부방법의 문제, 의지박약 등으로 자신의 학습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말 공부방법이 문제였다면 인터넷이나 관련 서적에 적힌 몇 가지 정보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의지가 부족한 것은 자신의 동기나 정서적 상태에 대한 탐색이나 고려 없이 학습계획을 짜고 무리한 계획을 실천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대에 다니던 A라는 학생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동기들 중에는 과학이나 특목고를 나온 친구들이 많았고 A는 그 속에서 늘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A는 계절학기에도 들을 수 있는 모든 학점을 신청하는 등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였으나, 언어장벽과 선행학습 부족 등으로 평점은 늘 낮은 상태였다. 어느 순간부터 A는 지쳐갔고 학교와 도서관을 멀리하게 되었다. 일과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A는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뒤처진다고 느껴지는 것이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열등감이나 초라해지는 느낌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이기에 A는 그런 상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더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고립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을 의지박약으로 정의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헤쳐 나갈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견디기만 하는 생활방식은 사람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이다. 먼저 A에게는 뒤처지는 느낌을 다루는 법이 필요했다. 열등감이나 초라해지는 느낌을 공감 받고 위로 받는 경험이 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느낌을 버티면서 견뎌왔던 자신이 가진 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 A에게는 성공경험이 필요했다. 뒤처지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당연히 나도 남들만큼이나 잘 하고 싶고, 때론 앞서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꺼번에 큰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부족한 선행학습을 채워줄 온라인 강의나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멘토를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렇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아가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A는 점점 더 높은 평점으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인문대에 다니던 B는 고시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며 학습상담실을 찾았다. 안정적이

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고시공부를 시작했지만, 저녁시간이면 TV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등의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있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자신이 공부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었다. B는 자신이 고시공부를 할 때의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공부를 하는 동안 다른 관심사로 생각이 옮겨가는 것을 막느라 또 그런 자신을 질책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고, 정작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상태와 경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사실 B는 창의적인 일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그런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더 에너지를 얻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런 B에게 고시공부는 너무도 답답하고 지루한 것이었기 때문에, B는 더 흥미 있고 재미있는 다른 활동에 몰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흥미를 인정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고시공부를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어떤 활동이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활동이 지루함의 고통을 주는지 B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이후에 B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감정을 자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B는 학습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학습 레시피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견디고 이겨내는 문화에 너무 젖어버린 것 같다. 그와 반대로 정서적인 상태를 다루는 방법이나, 나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하는 방법들을 경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학습상담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일깨워주며,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학습전략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력하고 있다. 그렇게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학습 레시피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풍성하고 맛깔나는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자신만의 학습 레시피를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학습상담실의 문은 열려있다.